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kc.org@gmail.com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투스 평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 제1독서 | 사도행전 10,25-26.34-35.44-48

### 화답송



(후렴)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제2독서 | 요한 1서 4,7-1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음 |** 요한 15,9-17

**성가 |** 입당성가 [414] 예물준비 [211]  
영성체 [188] 파견성가 [244]

### 미사봉헌

연미사	봉헌
김응복 크리스티나	박성환 바오로
임순남 엘리자벳	김미혜 이레나
생미사	봉헌
이남석 베드로, 이서연 마리로사	익명
김영희 클라라	익명
유선욱 베로니카, 유비타 가정	익명
성령기도회 회원들의 영육건강	익명
민완준 필립보	요셉회
임영애 스텔라	김기례 레지나
임영애 스텔라	강해숙 바올라
성령대회 봉사자들	익명
본당 바자회	익명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5월 5일	백이백	정은철	류유리	류유리	유정욱	이유스티나 양글라라
5월 12일	정유진	민완준	김승연	김승연	민덕미	한테레사 최사도요한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전신자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 73,511단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제 24회 나눔의 바자회**

날짜: 5월 19일(주일), 장소: Broadway Btn31/32st  
문의: 추진위원장 강호영 안드레아 516-521-3113  
후원금접수: 사무실 또는 재무데스크. 바자회를 위한 물품  
을 후원해주실 분들은 미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바자회  
판매용 헌 옷은 세탁하여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모금액 현재: \$8,035**

강호영, 이영애, 큰집, 원조, 성모회양말판매(\$1,315), 진홍섭,  
박기목, 민완준, 조남록, 강혜숙, 강명옥, 윤동진, 노사비나, 윤  
숙경, 안선정, 박인영

**▶사업체 후보 광고 1년 신청 안내**

주보에 홍보가 필요한 사업체의 신청받습니다.  
신청장소: 미사후 재무데스크, 신청 마감 5/19(주일)  
신청비: \$300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명함과 함께)

**▶'성프란치스코의 집' 재속회 바자회에 오세요~**

일시: 오늘(5/5) 9am~3pm, 성프란치스코의 집  
주소: 147-07 Bayside Ave Flushing, NY11354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  
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이주윤 카타리나 646-696-4680

**▶미동북부 ME 80차 부부주말**

World Wide Marriage Encounter(WWME)는 혼인한 부  
부가 대화를 통해 부부 관계를 성장시키며 사랑의 일치로 이  
루어 더욱 깊은 혼인 생활을 누리게 하려는 운동입니다.  
날짜:5/25~27 장소: 뉴욕롱아일랜드 헌팅턴신학교 참가비: \$100(부부)  
문의: 장철순 스테파노, 장혜윤 크리스티나 646-322-3484

**▶청년 레지오 단원 모집**

대상: 20대, 30대, 40대 남녀가 기도 및 활동 나눔, 봉사, 분  
당 협조 등의 크고 작은 선교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  
\*희망의 모후Pr. 매주목 6pm 단장:정다경마리아 347-514-5783  
\*우리즐거움의원천Pr.매주일11am 단장:이기원스테파노 929-208-5147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  
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꽃을 심고 나무를 심어 보십시오.  
마음이 흙처럼 풍성해집니다.



###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FLORA YANG)  
무역 수입 IMPORT & 수출 EXPORT  
657-337-5130  
marketing@cziusa.com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 nycacu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더큰집**

TEL. 212-564-8238

**WONJO** New Wonjo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barbecue

10 W 32nd St. 1,2,3 FL, New York, NY  
212-594-4963 전 스테파노

**HB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Tel : 347-840-2112  
(32 St.- 33 St.) Fax : 212-631-8070  
New York, NY 10001 hanbittour@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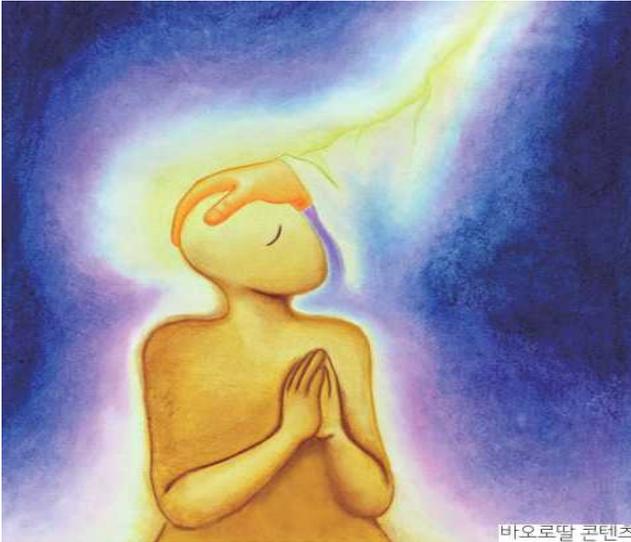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광고주를 찾습니다.

##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이 무어나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40대가 넘는 세대라면 누구나 귀에 익숙한 가수 나훈아 노래의 한 소절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좋았다가 싫어지면 그만이지만, 이별의 아픔과 슬픔은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어 내야 하는 고통과 희생이 너무 무거워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랑이 계시되지 않을 때, 인간이 사랑을 만나지 못할 때, 사랑을 체험하고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할 때, 인간은 자기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남게 되며 그의 생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인간의 구원자, 10항〉

사랑은 다른 어떤 가치로도 치환될 수 없는 생명의 절대 조건인 것을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응답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을, 그 사랑을 감지하도록 우리를 부추기십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사도들과 그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내리시고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갈수록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통감하며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한계와 무능과 비참을 감당하기 어려워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누추하고 무능한 실패자가 되어서 우리와 연대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격이 없이도 움츠러들지 않고 사랑해도 되는 분은 그분, 한 분뿐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기준이 있고 자격이 미달되면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당신을 믿고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분께서 자격 없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기에 우리도 조건 없이 우리 삶을 이웃과 나누어야 할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 (1요한 4,12)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믿는 것이며,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사랑의 길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1요한 4,8) 김영수 헨리코 신부